



Celebrate 10 Years of
Coca-Cola Environment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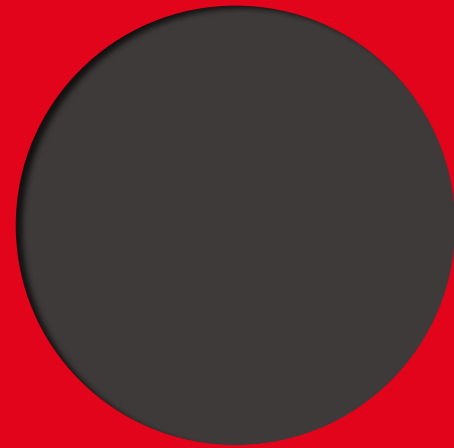
1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Celebrate 10 Years of
Coca-Cola Environment Report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코카-콜라 & 스토리

코카-콜라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 이 순간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이 순간!

이 순간 & 짜릿함

평범한 일상은 짜릿한 추억이 됩니다.

짜릿함 & 우리

짜릿한 코카-콜라를 마시며 하나가 된 우리.

우리 & 환경

우리의 일상과 환경을
지속가능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

환경 그리고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0년간 함께해온 소비자들의 사랑, 지역사회와의 행복한 상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 코카콜라(유) 대표이사 이창엽

Paul C. Yi

‘OK’ 다음으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로 손꼽히는 코카-콜라, 세계인들의 일상에 짜릿한 행복을 선사하는 코카-콜라가 올해로 130년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사는 1886년 애틀란타 존 펨버튼 박사의 약국에서 코카-콜라 1개 제품으로 시작한 이래, 현재는 200여 개 국가에서 3,800여 개의 제품군을 선보이는 세계 1위의 종합음료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코카-콜라가 130년이오래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짜릿한 일상과 함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야 코카-콜라도 성장할 수 있다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회사의 환경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한 환경보고서가 올해로 발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음료업체로서는 최초로 2007년 처음 발간한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환경과 행복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코카-콜라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코카-콜라가 이룬 환경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한 매개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축하하는 ‘스페셜 페이지’를 마련, 지난 10년 간의 환경성과를 돌아보고, 이해 관계자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코카-콜라사가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또 비즈니스 및 기업활동의 전 과정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30년 동안 소비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짜릿한 상쾌함을 제공해온 코카-콜라에게 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코카-콜라사는 2020년까지 음료생산을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양의 물을 100% 자연으로 환원하는 ‘물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료의 약 94% 가량을 각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수자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으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빗물재활용과 관계농업, 안전한 식수 및 위생문제 해결 등 각 지역사회의 현지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며,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코카-콜라사는 2004년 이래 총 1,536억 리터의 물을 자연에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재단과 함께 6년째 국내 주요 람사르 등록 습지 체험프로그램인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 리더십’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3년부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올바른 물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를 운영,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카-콜라는 상쾌함과 행복을 전하는 음료회사로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지역사회와 함께할 의미있는 노력들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건강한 ‘1등 음료회사’가 되겠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대표이사 이형석

이형석

언제나 당사를 성원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카-콜라 환경 보고서가 발간 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2007년 음료업계 최초로 발간된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당사의 환경경영에 관심을 가진 이해 관계자 여러분과의 소통 매개체로, 또 당사가 지난 1년간 거둔 환경성과를 소개하는 매체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2016 코카-콜라 환경보고서에도 반영돼 있지만, 코카-콜라는 지난 10년간 수자원 보호,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모두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카-콜라 환경보고서가 계속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당사는 메르스(MERS)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 등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그 동안 쌓아온 실력과 굳은 의지, 그리고 실행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경은 계속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선도를 통해 ‘1등 음료회사’의 비전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체계적인 개선활동을 실행하여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설비 개선투자 및 환경안전 진단 강화 등을 통해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안전 사고 발생을 적극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업장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같은 신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환경관리시설의 지속적인 보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경영 활동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음료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코카-콜라 500ml와 생수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휘오 순수의 저탄소제품 재인증, 그리고 탄소배출량 인증확대를 통해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자원보호와 관련해서도 당사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물의 위기를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물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Water)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물 관련 의사결정 내용, 관리 전략, 물로 인한 위험 및 기회요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효과적인 용수관리 전략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활동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Earth Hour, 국제 연안 정화활동(ICC,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1사 1하천 보호활동 등을 내실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과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 운영을 통해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건강한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코카-콜라는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6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이 추진해 온 환경 관련 정책과 환경 경영 활동을 고객과 지역사회, NGO, 정부기관 등 해당 이해 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개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카-콜라 시스템의 각 공장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해 온 활동 현황과 성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관련 데이터는 추이 비교를 위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contact us

본 보고서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다음 보고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카콜라(유)
홍보부 이진영 부장
tel. 02-3271-3073
e-mail. jinyolee@coca-cola.com

코카-콜라 음료(주)
HES팀 김종석 파트장
tel. 031-8045-1534
e-mail. jongseok.kim@cckb.co.kr

Contents

04	Intro	23	코카-콜라 환경경영활동 상세내용 및 성과
	코카-콜라 & 환경 이야기	24	환경경영 개요
06	CEO 메시지	29	물 관리
09	코카-콜라 환경경영 시스템 /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및 현황	35	지속가능 포장
		39	에너지 관리와 기후보호
18	스페셜 페이지	46	환경보호 프로그램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10년 간의 환경성과 리뷰/ 축하 메시지 / 인터뷰	49	환경보고서 용어사전

본 환경보고서는 FSC인증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Coca-Cola Business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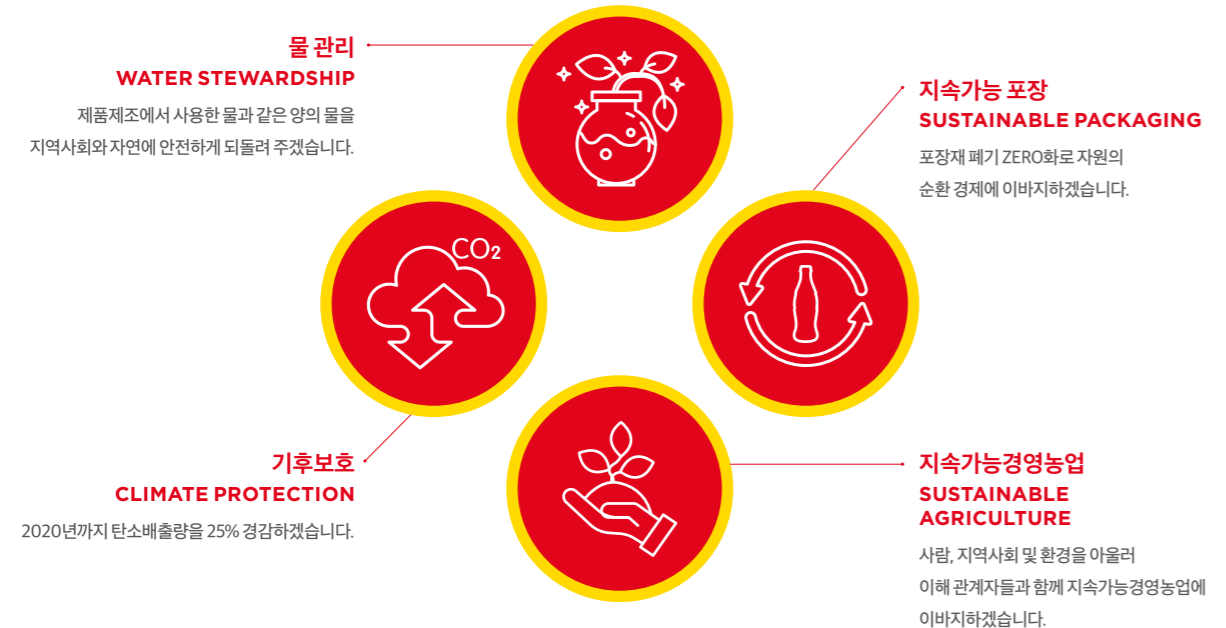
한국 코카-콜라 비즈니스는 원액제조 및
브랜드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국 코카-콜라와 제품생산·
유통·고객지원활동을 전담하는 코카-콜라 음료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또한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정책을
준수합니다.

- 01.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경영 시스템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시스템 4대 목표
- 02.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경영관리체계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정책 선언문/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정책 세부사항
- 03.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 04. 한국 코카-콜라 현황
매출 현황/종업원 현황/국내 사업장 현황/
한국 코카-콜라가 걸어온 길/생산 제품 현황

“코카-콜라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코카-콜라사의 지속가능경영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음료의 원액 제조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경영 시스템인 ISO14001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과 환경 이해 당사자의 요구 사항, 코카-콜라 자체의 환경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코카-콜라 고유의 환경·품질·안전 관리 시스템인 KORE(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 지속가능 환경경영 시스템의 4대 목표



물 관리	지속가능 포장	기후보호	지속가능경영농업
Reduce 물 사용량 감소 -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물 사용 효율 25% 향상 - 2020년까지 물 사용지수 1.70 L/L 달성 Recycle 물 재활용 - 수중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엄격한 폐수 처리 기준 준수 Replenish 물 재충전 - 수계보호 및 지역사회 물 프로그램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음료 완제품 생산에 사용한 물과 동일한 양을 환원하는 물 중립 달성	Reduce 포장재 사용량 감소 - 용기 경량화를 통한 용기 디자인 개선 Recover/Recycle 포장재 회수/재활용 - 사업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판매하는 용기 및 캔에 대한 재활용률 75% 달성 Renew/Reuse 신포장재/재사용 - bio PET를 함유한 PET용기(PlantBottle) 100% 사용	Manufacturing 에너지 사용량 감소 -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지수 0.38 MJ/L 달성 - Top 10 Energy Saving Challenge 프로그램 시행 Refrigeration HFC-Free 냉장 판매 장비 - 2015년 이후 HFC-Free 냉장 판매 장비만을 구매 Packaging 재활용 포장재 사용 - 재활용 PET 사용 증가	Procurement 지속가능경영농업 - 2020년까지 코카-콜라 비즈니스의 중요 농산물 원료를 100% 지속가능경영농업 자원으로 구매

“코카-콜라는 체계적·효율적인 글로벌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정책 선언문

전 세계 코카-콜라사(TCCC)와 보틀링 파트너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환경성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는 코카-콜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문화의 일부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코카-콜라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TCCC와 보틀링 파트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전하는 한편, 환경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는 임직원들을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환경과 관련된 해당 법규 및 회사의 요구 조건들을 준수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정책 세부사항

경영 시스템	환경정책과 표준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각 조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제공을 통해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법규 준수	환경 관리와 관련된 코카-콜라의 요구조건들(코카-콜라 사업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내부 요구 조건) 혹은 해당 법규의 요구조건들(모든 해당 법규, 규정 및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중 보다 강한 법규를 적용하되 그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임직원의 참여 및 교육	각 조직 임직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명백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 교육훈련, 의사소통시스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경영향 평가	환경과 관련한 위험성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도출합니다.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조건과 해당 법적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하고 주기적인 간격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위기 관리 및 해결(IMCR)	해당 법규 및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조건에 일치하지 상표와 브랜드 이미지, 회사 자산, 임직원, 계약자, 고객 및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환경 사고를 관리합니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 NGO 등 다양한 공공단체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합니다.

Global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코카-콜라는 4단계에 걸친 철저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코카-콜라는 4단계에 걸친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통해 '물 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기후보호에 힘쓰며,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변화에 기여합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들을 위한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는 원액 제조 및 브랜드 관리를 책임지는 코카-콜라사와 완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 등 영업을 책임지는 현지의 보틀링 회사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보틀러(Bottler)'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틀러들은 공장과 운송수단 등 현지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투자를 담당하며,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 믹스와 유통 전략을 구사합니다.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역시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관리, 프로모션 등을 담당하는 한국 코카-콜라(Coca-Cola Korea Company)와 제품 생산 및 유통, 고객지원활동을 전담하는 코카-콜라 음료(Coca-Cola Beverage Company)의 2개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카-콜라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자매사 해태htb 등이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 시스템은 코카-콜라 이외에도 환타, 스프라이트, 씨그램 등의 스파클링음료와 파워에이드, 미닛메이드 주스, 휘오 순수, 조지아 커피, 글라스 비타민워터 등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제품을 다수 선보이며 한국 음료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상쾌함을 제공하는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화 전략을 적극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매출 현황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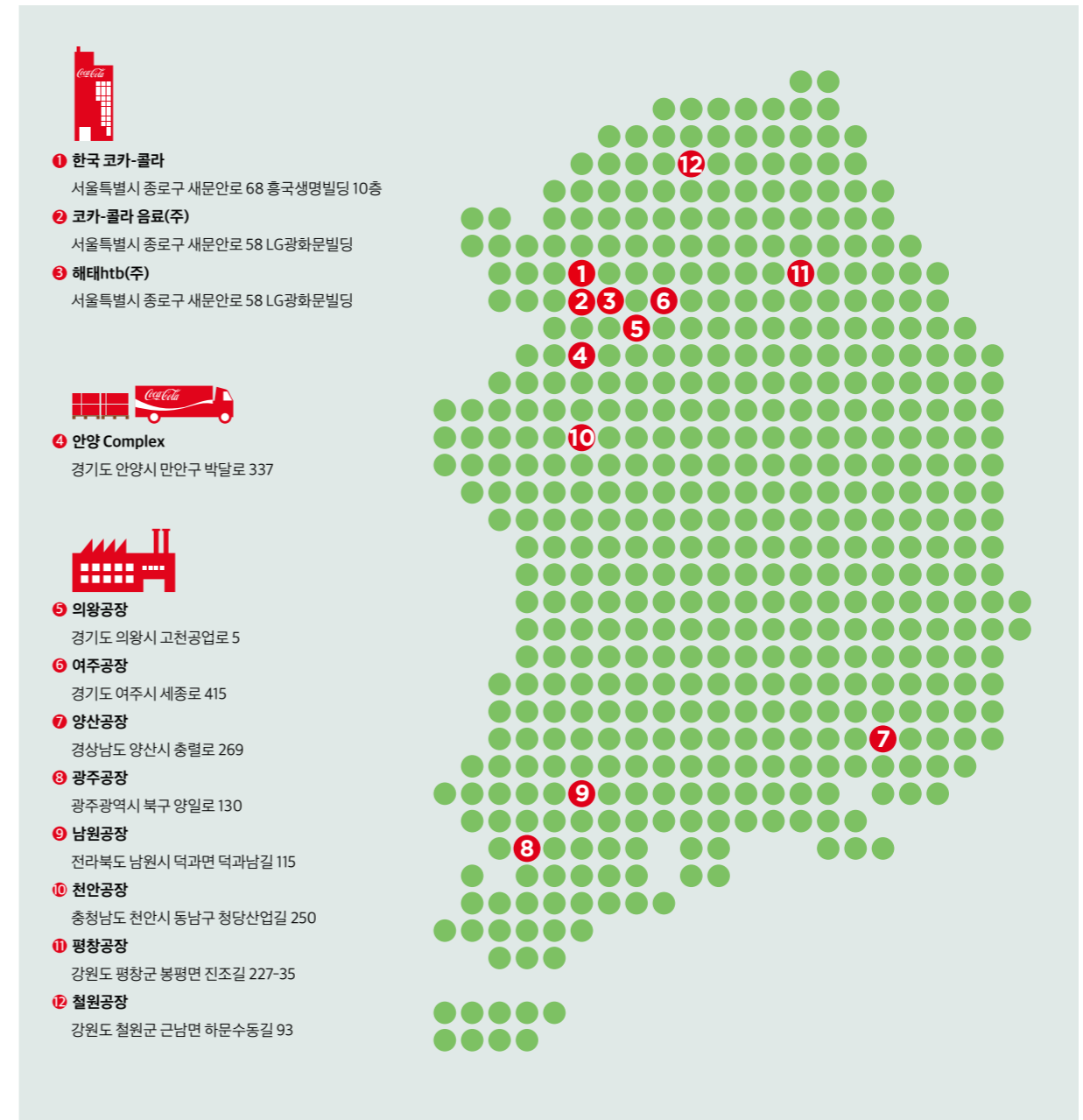


코카-콜라 음료(주) & 해태htb(주) 종업원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관리사무직	생산물류직	영업판매직	총계
코카-콜라 음료(주)	592	501	1,287	2,380
해태htb(주)	232	262	286	780

국내 사업장 현황

한국 코카-콜라는 전국 주요 지역에 8개의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단일 유통망을 구축해 신속한 배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HISTORY

1950

한국전쟁 때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됨

“1950년 한국에 처음 소개된 코카-콜라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 1968 · 한양식품에서 처음으로 코카-콜라 국내 생산 및 판매
- 1974 · BIK(現 한국 코카-콜라) 창립
- 1980 · 국내 음료시장 최초로 캔 패키지 도입(코카-콜라)
- 1982 · 국내 음료시장 최초로 테트라 팩 도입(하이-C)
- 1983 · 국내 음료시장 최초로 PET 패키지 도입(코카-콜라)
- 1996 ·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 설립
- 1998 · 코카-콜라 아마틸에서 코카-콜라사로부터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 인수
· 전국 단일 보틀링 시스템 구축
- 2000 · ISO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여주)
- 2001 · ISO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양산, 광주)
- 2004 · 여주공장 경기환경그린대상 수상(수질보전 유공)
- 2006 · 환경부장관상 수상(환경보전공로)
- 2007 ·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환경보고서 발간
· (주)LG생활건강에서 코카-콜라 아마틸로부터 한국 코카-콜라보틀링(주) 인수, 코카-콜라 음료(주)로 사명 변경
- 2008 · 환경친화기업 인증(광주)
· 양산공장 환경부장관상 수상(폐기물 감량 유공)
·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 참여 (코카-콜라 500ml)
- 2009 · 다이아몬드샘물 인수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 2010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한국음료 인수
· 저탄소제품 시범인증사업 참여 (코카-콜라 500ml)
· 여주공장 환경부장관상 수상(폐기물 감량 유공)
- 2011 · 해태음료 인수
- 2012 · 저탄소제품 인증취득(코카-콜라 500ml,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500ml & 2L)
· 환경부장관상 수상(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유공)
· 국내 최초 플랜트보틀 출시
- 2014 · 녹색기업 인증(천안)
- 2015 · 저탄소제품 재인증 취득(코카-콜라 500ml, 휘오 순수 500ml & 2L)

2016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10주년 기념호 발간
· 해태음료(주)에서 해태htb(주)로 사명 변경

생산 제품 현황

한국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와 같은 스파클링음료를 비롯해 주스·과채음료, 커피·차음료 등 무려 27종에 달하는 다양한 음료를 생산, 한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스파클링음료**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라이트, 환타, 암바사, 스프라이트, 킨사이다, 씨넨텐, 슈웬스, 씨그렘, 닥터페퍼
- 주스·과채음료** 미닛메이드, 코코팜, 과일촌, 쿠우
- 커피·차음료** 퓨즈티, 조지아, 태양의 마테차,
- 기타음료** 파워에이드, 토레타, 지코, 글라스 비타민워터, 글라스 후르츠워터, 휘오 제주V워터, 휘오 순수, 휘오 다이아몬드, 강원 평창수, 씨그렘 내추럴 미네랄워터





10년 간의
환경성과 리뷰

2016 Coca-Cola Environment Report

Celebrate 10 Years of Coca-Cola Environment Report

“2016년은 코카-콜라가 환경보고서를 발간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07년 첫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코카-콜라는 매년 환경경영활동 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환경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2007

다시 태어나는 물



2008

즐거움 물



2009

Green World,
It's Our Dream!



2010

미래와 함께하는 순환



2011



2012

We See Our Potential



2013

We Live with Friends
of the Earth!



2014

Share a Coke,
Love the Earth



2015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2016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물 관리·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2007년 음료업계 최초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2008년 폐기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폐기물 저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광주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더불어 폐기물 감축 및 재순환 활동을 통한 자원순환선도기업대상 수상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는 2010년 음료업계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선도적인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듬해인 2011년에는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휘오 순수가 그린패키징 은상 수상과 함께 음료업계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 획득이라는 쾌거를 기록했고, 2013년에는 전 사업장의 용수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철저한 물 관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음료업계 최초로 탄산제품과 생수제품의 탄소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 저탄소 녹색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5년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 국제 세미나에 참석, 코카-콜라만의 환경경영 노하우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발간된 환경보고서에는 이 같은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성과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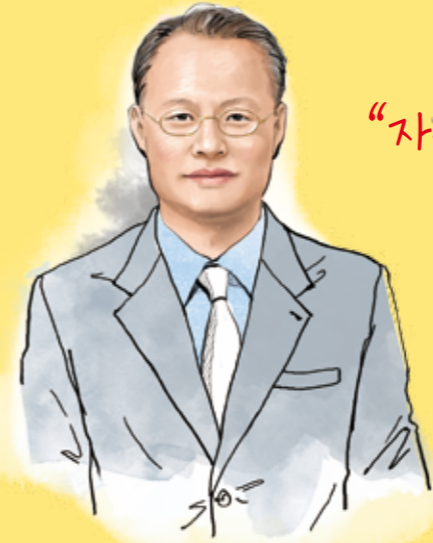


환경경영의 지속 추진을 통한 의미 있는 환경성과 창출

코카-콜라는 제품 제조에서 사용한 물과 같은 양의 물을 지역사회와 자연에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물 관리', 포장재 사용량 감축 및 회수·재활용에 힘쓰는 '지속가능 포장',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에너지 관리와 기후보호'를 지속적으로 실천 중입니다. 이를 위해 제품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는 용수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해 용수사용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의 용수사용지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품생산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15년 용수사용지수는 큰 변동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재사용을 나타내는 폐기물재활용지수는, 2006년 39%로 출발해 2015년 현재 99.1%를 기록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여주며 완벽한 자원순환을 의미하는 100%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2006년 37,753tCO₂였던 총배출량을 2015년 45,696tCO₂로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elebrate 10 Years of Coca-Cola Environment Report

“코카-콜라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코카-콜라가 매년 환경 관련 정부기관, NGO 등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환경보고서에 반영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코카-콜라의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 코카-콜라가 함께하기에 힘이 됩니다. 폐기물의 3R(Reduction, Reuse, Recycle)이라는 작은 노력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는 큰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진수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더 나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코카-콜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코카-콜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코카-콜라는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린 리더십’ 과정과 ‘빗물학교’를 통해 수자원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을 통해 더 나은 환경,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최열 · 환경재단 대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코카-콜라의 지속적인 행진을 응원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자연은 훼손되고 환경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런 만큼 지난 10여 년간 코카-콜라의 노력과 실천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자원이 순환되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코카-콜라의 환경정신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들 곁에서 환경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세걸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코카-콜라가 ‘물 중립’ 등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세계적인 친환경기업으로서 위상을 다지길 기대합니다”

세계자연기금(WWF)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살 경우 1년에 3.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1년간의 자원을 4개월 만에 모두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카-콜라는 2020년까지 음료 생산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양의 물을 100% 자연으로 환원하는 ‘물 중립’을 실천 중입니다. 이렇게 코카-콜라처럼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앞장서 변화할 때 세상도 변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코카-콜라의 환경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으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윤세웅 ·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대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코카-콜라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올해로 탄생 130주년을 맞이하는 코카-콜라가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포함해 원료취득에서부터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Life Cycle)에서 친환경 생산 및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전 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 과정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 및 공정 개발에 매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허탁 ·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변화, 회수·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이 답입니다”

심무경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지구가 보유한 유한한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재활용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제품 및 포장재,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재활용에 앞장서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제2대 이사장으로 부임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과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체계화·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인 심무경 이사장. 그가 생각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원순환 100%를 달성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미션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Zero-Waste)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목표를 EPR 재활용 목표량 100% 달성, 2017년 EPR 포장재 재활용률 82% 달성,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기반구축 및 안정화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도 지난해 대비 4.6%, 이에 소요되는 재활용지원금 역시 지난해보다 8.1% 높아 잡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외 경기 둔화로 재활용시장이 침체돼 있긴 하지만 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의 회수체계 개선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목표 달성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조기 안정화에도 좀더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특히 무인회수기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해 소비자가 좀더 편리하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자원순환 100% 달성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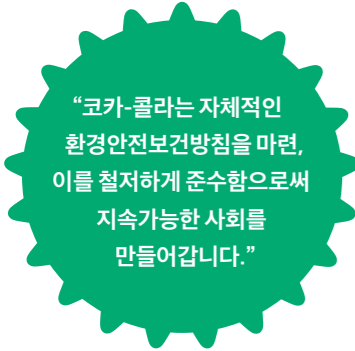
자원순환형 사회 확립의 제1조건, 무엇일까요?

역시 ‘소통’과 ‘공감’이 아닐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폐자원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지자체와 군부대 대상 ‘회수·선별 경진대회’ 개최, 빈용기 온라인 회수지원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영상 제작 및 방영, 라디오 캠페인 등을 통해 빈용기보증금이 제품 가격과 별개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임을 집중 부각시키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뭐든 알아야 변화하고, 변화해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뿐인 지구의 자원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제품 및 포장재,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재활용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코카-콜라와 같은 영향력 있는 기업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Environment Management Performance

“코카-콜라는 지속가능경영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 관리, 지속가능 포장, 에너지 관리와 기후보호 등 지구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꾸준한 환경성과향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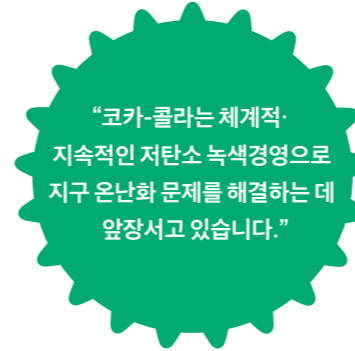
- 01. 환경경영 시스템
 - 코카-콜라 환경안전보건방침
 - 녹색경영 체계 구축 목표
 - 환경경영 시스템
 - 환경사고대응체계
 - 환경성과 평가
- 02. 물 관리
 - 용수 관리
 - 수질오염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
 - 비점오염원 관리
- 03. 지속가능 포장
 - 폐기물 관리
 - 빈용기보증금 / 재활용분담금 관리
- 04. 에너지 관리와 기후보호
 - 온실가스 관리 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온실가스 배출량
 - 탄소성적표지제도
 - 녹색구매 실적
- 05. 환경보호 프로그램
 -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 코카-콜라 그린리더 빛물학교
 - 지구를 위한 1시간 -Earth Hour
 - ICC 환경정화활동/지역환경 개선활동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답게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방침 상세 내용

- 1** **환경안전보건방침 규정 준수**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이행함으로써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
- 2** **환경안전보건방침 목표 수립**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 3** **쾌적한 일터 만들기**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4** **임직원 교육 및 실천**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5** **지역 환경보호활동 지원**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6** **지역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지원**
 사내 외 협력회사와 환경·안전·보건 상생 협력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향 평가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7**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서화와 주기적 검토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안전·보건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코카-콜라는 국내 환경 기준 및 코카-콜라 자체 기준(KORE)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환경경영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녹색기업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 환경 이슈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성적표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체계 구축 3단계



환경보고서 발간 전후 10년 간의 환경경영성과

구분	환경보고서 발간 전(2006)	환경보고서 발간 10년 후(2015)
ISO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	●
코카-콜라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	●
환경경영 IT시스템 구축	●	●
환경보고서 발간		●
녹색기업 인증		●
탄소라벨링 인증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녹색구매 시스템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
코카-콜라 원수보호계획(SWPP, Source Water Protection Plan) 수립		●

“코카-콜라는 환경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 실천합니다”

코카-콜라는 환경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중이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2000년부터 시작해 8개 전 생산공장에 ISO14001(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사의 자체 품질·환경·안전·보건 시스템인 KORE를 도입해 이를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카-콜라는 정부의 녹색기업 인증을 공장에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는 물론 국내 환경 동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기업에 요구되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자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사내 직원들과의 환경 이슈 공유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협력업체들의 녹색경영 및 환경관리를 위한 지원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카-콜라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해 '외래생물퇴치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2018년까지 매년 외래생물 퇴치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ISO14001 인증서 녹색기업지정서



외래생물퇴치 협약서



외래생물퇴치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및 협약 현황

구분	ISO14001	OHSAS18001	KORE	녹색기업	온실가스 감축 협약	외래생물 퇴치협약
여주	●	●	●			
양산	●	●	●			
광주	●	●	●	●		●
천안	●	●	●	●	●	
평창	●	●	●			
철원	●	●	●			
남원	●	●	●			
의왕	●	●	●			

환경·안전·보건 심사의 구성

코카-콜라는 외부 전문가의 감사와 함께 경력과 자격을 갖춘 내부 환경인원을 활용한 자체 ESH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코카-콜라 ESH 시스템 규격과 국내환경법규 준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검 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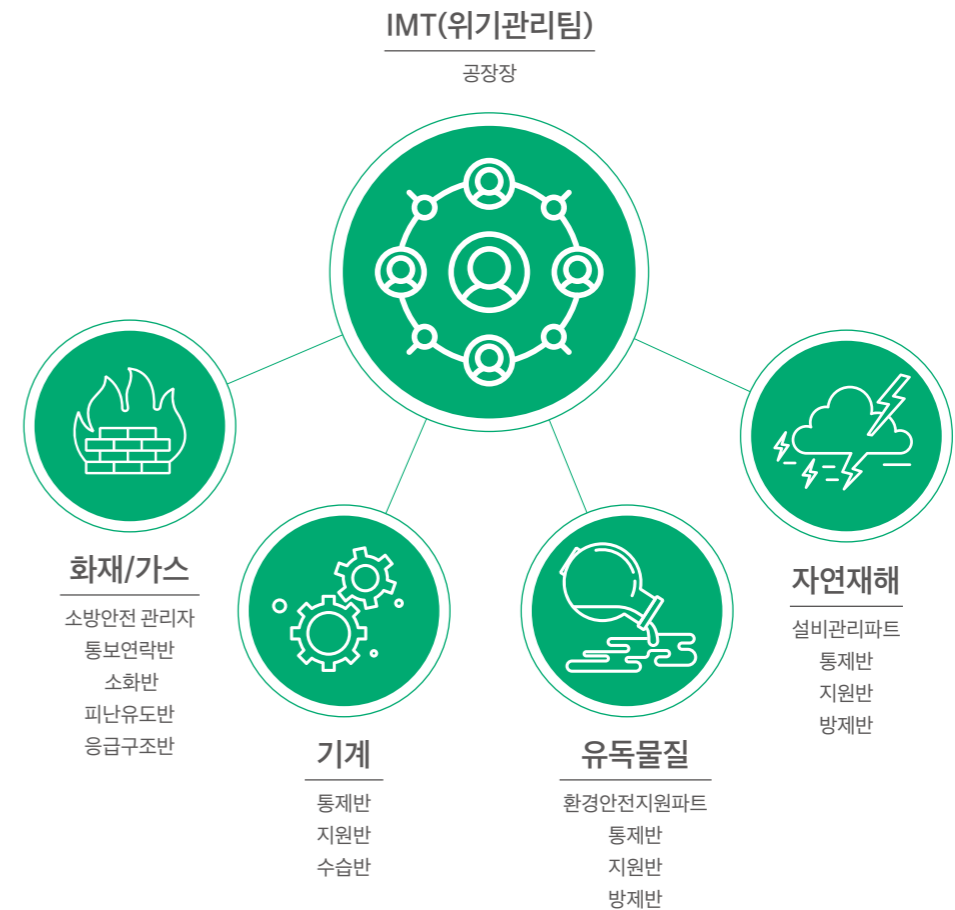
종류	적용대상	감사자	적용내용
ESH 영향 및 측면 파악	ISO14001, OHSAS18001 규정에 의함	각 공장 ESH 담당자	ESH 경영시스템에 반영
환경영향 평가	신규 부동산 및 동산에 적용	외부 전문가 및 내부 환경 전문가	신규계약서/지침서에 반영
영업/물류 ESH 점검	개별 공장에 적용(물류센터/공장)	사내 ESH 담당자	법규/코카-콜라 준수에 반영
협력업체 ESH 감사	원부자재공급 OEM업체 적용	사내 ESH 담당자	법규/코카-콜라 준수에 반영

“코카-콜라는 위기상황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사적 위기관리 시스템(Incid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은 코카-콜라의 소중한 자산인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손실을 위험 및 사고로부터 예방함은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물적, 인적자원 손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피해까지 최소화하여 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8개 공장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개괄적인 위기관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경미한 수준', '중간 수준', '중대한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등 상세한 세부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공장 위기관리 시스템

위기관리팀은 위기상황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해당 사업장 공장장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모든 공장에 동일한 환경성과지표를 도입,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입니다”

코카-콜라의 환경성과는 전 세계 코카-콜라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EPM(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 지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코카-콜라는 현재 국내 공장과 국외 공장의 성과를 비교 검토한 후 그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EPM 지표는 코카-콜라가 제품의 다양화 및 생산력 강화를 위해 인수한 해태htb 등의 생산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각 공장의 환경성과를 비교·분석해 성과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코카-콜라 음료와 해태htb 공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환경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환경성과지표

코카-콜라 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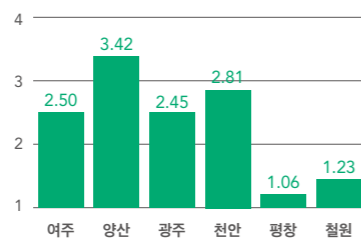
항목	단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용수 사용지수	용수-L/제품-L	2.50	3.42	2.45	2.72
폐기물 재활용지수	%	98.14	99.99	99.96	99.07
폐기물 발생지수	g/제품-L	14.74	25.87	25.20	19.39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g/제품·m ³	29.6	34.5	37.2	32.20
전력사용지수	kWh/제품-L	0.059	0.063	0.061	0.060

해태h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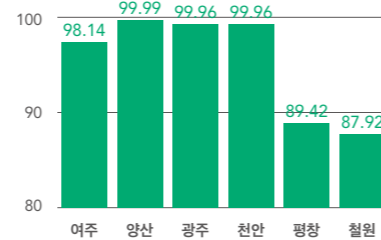
항목	단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용수 사용지수	용수-L/제품-L	2.81	1.06	1.23	1.70
폐기물 재활용지수	%	99.96	89.42	87.92	92.43
폐기물 발생지수	g/제품-L	14.09	1.89	1.23	5.74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g/제품·m ³	13.7	0.1	0.7	4.8
전력사용지수	kWh/제품-L	0.071	0.060	0.041	0.060

이외에 남원사업장의 경우, 용수 사용지수는 5.16L/L, 폐기물 재활용지수는 72.01%, 폐기물 발생지수는 7.31g/L을 기록했고, 수질오염물질배출지수는 49.3g/m³, 전력사용지수는 0.105kWh/L을 나타냈습니다.

사업장별 용수사용지수 (단위: 용수-L/제품-L)



사업장별 폐기물재활용지수 (단위: %)



물 관리 Water Stewardship

“코카-콜라는 소중한 물을 아끼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카-콜라는 소중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공정에서 용수 재사용·재활용을 적극 검토해 시행 중입니다”

코카-콜라는 소중한 물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에서는 생산부문 내 각 부서 전문가들로 물 절약 TF팀을 조직, 제품 제조과정에서 낭비되는 물 사용처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미 사용된 물이라 하더라도 공정 중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용수사용량 절감 개선 사례

사업장	개선항목	기대효과
여주	용수 사용 절감형 신생산설비(PET 5 라인) 도입	용수사용량을 최소화해 운영하는 자동생산설비를 도입, 용기세척수, 가온수 사용량을 절감하여 용수사용지수 개선 (용수사용지수: 2.62 ℓ용수/ℓ제품 → 2.50 ℓ용수/ℓ제품)
평창	PET 1라인 신규 설비 도입을 통한 공병세척수 절감	PET 공병 직접 생산(Self Blowing) 설비 도입으로 공병세척수 사용량 절감 (용수사용지수: 1.16 ℓ용수/ℓ제품 → 1.06 ℓ용수/ℓ제품)
천안	병3생산라인 Hot Water CIP 공정 효율화로 용수 절감	용수사용량 1,928톤/년 절감

용수 사용량 (단위: m)

코카-콜라 음료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13	1,075,076	651,958	321,101	2,048,135
2014	987,579	591,841	307,875	1,887,295
2015	996,774	601,008	301,853	1,899,635

해태htb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2013	377,028	162,210	106,244	645,482
2014	353,974	177,410	104,542	635,926
2015	395,254	160,500	90,179	645,933

여주공장 용수절감형 신생산설비 설치



“코카-콜라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 수질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법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전 생산계획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개선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는 각 공장 환경파트 주관으로 폐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폐수처리효율을 높여 나가는 중입니다.

사업장	개선항목	내용	기대효과
여주	혐기성처리시설 설치공사	생물학적 처리의 취약점인 부하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폐수처리공정에 혐기성처리시설 설치	- 방류수 COD 농도 약 50% (20→10 mg/L) 감소 - 원폐수 농도 부하변동에 취약한 점 보완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
	원폐수 유입 노후배관 교체	원폐수 유입배관의 노후로 폐수가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환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배관 교체	정성효과: 원폐수가 배관노후되어 우수관으로 유출되는 사고 예방

폐수 발생량 (단위: 톤/년)

코카-콜라 음료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13	621,936	296,615	202,463	1,121,014
2014	589,662	294,616	199,252	1,083,530
2015	553,398	291,537	184,796	1,029,731

해태htb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2013	199,726	6,037	19,536	225,299
2014	198,006	6,129	14,715	218,850
2015	232,113	2,668	16,934	251,715

여주공장 혐기성처리시설 설치



방류수 평균 수질

(단위: mg/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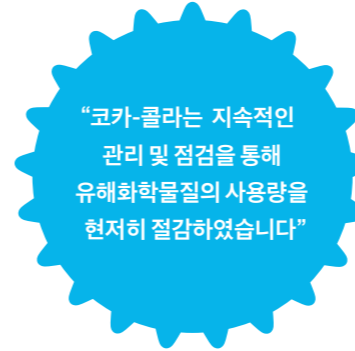
코카-콜라 음료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수질	
BOD ₅	30	7.12	40	7.18	120	6.42	7.01
CODmn	40	14.20	50	13.66	130	18.36	14.79
SS	30	3.02	40	3.99	120	15.35	5.50

해태htb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수질	
BOD ₅	120	1.56	40	2.13	40	0.73	1.51
CODmn	130	6.78	50	3.29	50	2.20	6.43
SS	120	1.89	40	1.58	40	0.60	1.80

여주공장 폐수처리장 전경






코카-콜라는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위기관리절차 구축, 비상사태 대비훈련 실시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감축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공장에서는 지정된 장소에만 유독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저장장소에는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설비 중 노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수시로 교체 및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분	개선항목	내용	기대효과
여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1. 생산현장에 설치된 저장·보관시설 탱크 교체 및 유출방지를 위한 방류벽 설치, 시립실 CIP A 외 6개소 2. 사용자 보호를 위한 세안설비 추가 설치, 시립실 CIP D 외 7개소 3. 생산동 유독물창고 개선, 화학물질 주입구함 바닥구배 개선 외 4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방재센터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광주	유독물 저장시설 혼합보관으로 인해 누출 시 반응성 우려	유독물보관장소 개선(구획분리, 방호벽, 트랜치 설치)	유독물 누출 시 외부 유출 방지
양산	유독물 노후 저장시설 신규 교체	유독물 저장시설 누수부분 개선	유독물 누출 시 외부 유출 방지

유해화학물질 용도

-  가성소다
세척용, 폐수pH조정
-  황산
폐수pH조정
-  질산, 염산, 과산화수소
세척용

양산공장 유독물 저장시설



여주공장 중앙방재센터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단위: 톤)

여주공장

구분	가성소다	황산	질산	염산	과산화수소	총계
2013	214.47	-	3.45	2.30	1.33	221.55
2014	210.75	-	4.35	0.66	1.44	217.20
2015	392.29	-	2.87	-	1.49	396.65

양산공장

구분	가성소다	황산	질산	총계
2013	239.69	0.08	7.44	247.21
2014	230.80	0.63	6.01	237.44
2015	192.16	-	5.86	198.02

광주공장

구분	가성소다	황산	질산	총계
2013	92.08	26.04	0.03	118.15
2014	104.99	27.43	0.03	132.45
2015	95.70	26.29	-	121.99

천안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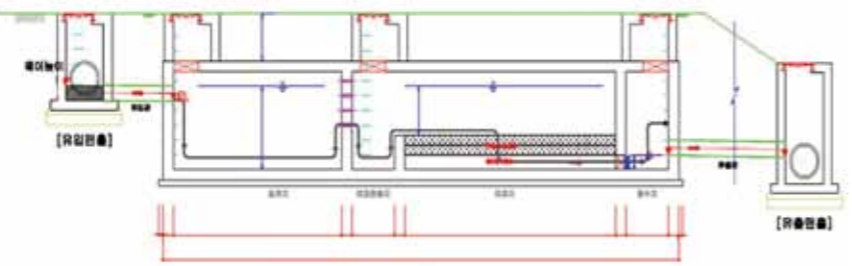
구분	가성소다	황산	질산	과산화수소	총계
2013	179.42	1.02	3.77	9.86	194.07
2014	145.39	0.48	2.53	9.01	157.41
2015	195.46	-	2.80	9.03	207.29

“코카-콜라는 철저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은 건기 시 토지 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을 지칭합니다. 최근 비점오염원에 대한 법적요구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코카-콜라는 해당 사업장에 비점오염원 시설을 마련,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시설은 크게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되며, 당사의 천안·남원·철원사업장은 장치형 시설 중에서도 여과형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여과형 시설은 강우유출수를 집수조에서 저장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해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입니다.

사업장	내용	오염물질 개선효과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관리대상: SS, BOD₅ / SS 80%, BOD₅ 54% • 부지 총면적: 149,746m² • 강우 노출면적: 109,945m² •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장치형(여과형) • 시설 수량: 2개소(322m²/hr, 228m²/hr) 	SS 80%, BOD ₅ 54% 제거
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관리대상: SS 80%, BOD₅ 54% • 부지 총면적: 30,834m² • 강우 노출면적: 25,245m² •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장치형(여과형) • 시설 수량: 2개소(80m²/hr, 50m²/hr) 	SS 80%, BOD ₅ 54% 제거
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관리대상: SS, BOD₅ / SS 80%, BOD₅ 50% • 부지 총면적: 18,710m² • 강우 노출면적 불투수면: 12,375.5m² • 투수면: 6,334.5m² •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장치형(여과형) • 시설 수량: 2개소(35.0m²/hr X 2) 	SS 80%, BOD ₅ 50%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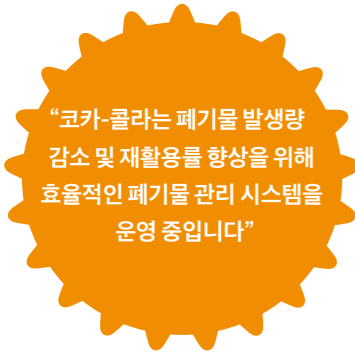
천안공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지속가능 포장 Sustainable Packaging

“코카-콜라는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로 폐기물 재활용 100% 달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사는 폐기물 관리 작업표준지침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장별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분리 배출 확대를 유도하고 신규 환경시설 도입 및 관리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

코카-콜라 음료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13	7,060	3,831	1,618	12,509
2014	6,561	4,205	2,924	13,690
2015	5,880	4,553	3,103	13,536

해태htb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2013	1,814	30	87	1,931
2014	2,425	135	78	2,638
2015	1,983	286	90	2,359

슬러지 발생량 (단위: 톤)

코카-콜라 음료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13	3,676	1,578	1,004	6,258
2014	3,377	1,946	859	6,182
2015	2,632	1,942	1,084	5,658

해태htb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2013	199	0	0	199
2014	212	0	0	212
2015	169	0	0	169

양산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광주공장 폐유리보관장 개선공사



폐기물 재활용률 (단위: %)

코카-콜라 음료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13	99.92	99.99	99.97	99.7
2014	99.22	99.99	99.95	99.6
2015	98.14	99.99	99.96	9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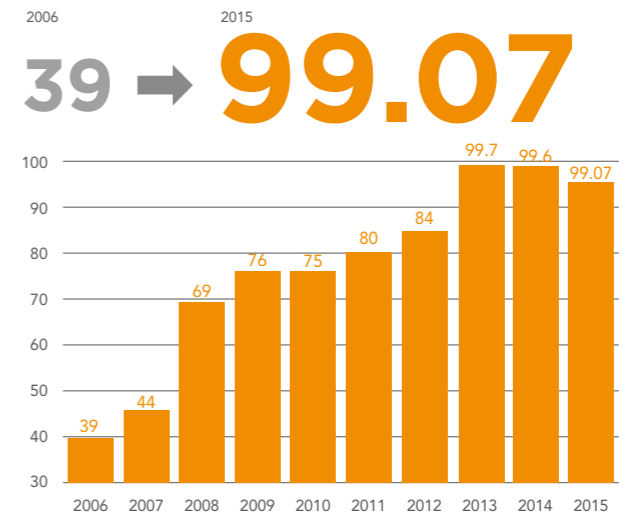
해태htb

구분	천안	평창	철원	총계
2013	99.52	0	88.17	97
2014	99.60	77.80	89.57	98
2015	99.96	89.42	87.92	98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개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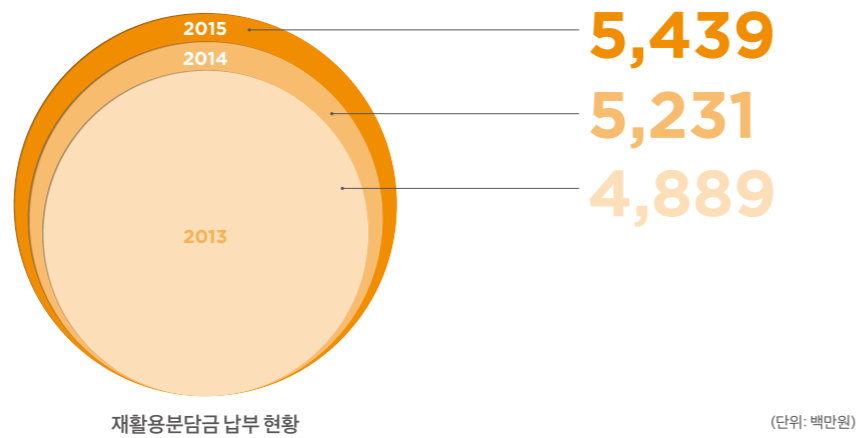
구분	개선항목	내용	기대효과
여주	혐기성처리시설 설치공사	혐기성처리시설 신설로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호기성소화조의 운영 축소 (3개 라인 폭기조 운영 → 2개 라인 폭기조 운영)	정량적 효과: 연간 슬러지 870톤 감소 -폭기조 3개라인 운영 시 연간 슬러지 발생량: 2,600 톤 -폭기조 1개라인 슬러지 발생량: 870 톤
양산	노후 PET 파쇄기 신규 교체	노후 PET 파쇄기 교체로 인한 처리 능력 향상 30HP → 50HP	적체되어 있던 환입품 처리능력 향상으로 외부유출 사고 예방
광주	폐유리 보관장 개선공사	폐유리 보관장 적체에 따른 폐기물 누출 및 침출수 관리에 어려움	폐유리 보관장 증설로 인한 폐기물 적체 해소

코카-콜라 음료 폐기물재활용률 (단위: %)



“코카-콜라는 비용기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분담금 제도에 적극 참여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정부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재활용의무량)를 부여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라고 합니다. 당사는 재활용공제조함에 가입, 제품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 및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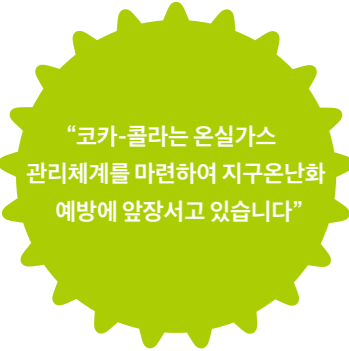
코카-콜라는 비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회수율 증진 및 제도 발전을 위한 협조 체제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용기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 사용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비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기 보증금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통해 비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원리이며, 당사의 대표제품인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등에 적용됩니다.



기후보호 Climate Protection

“코카-콜라는 지구 환경 및 기후보호를 위해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섭니다”





코카-콜라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2월 환경부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할당 받은 후 배출허용 총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초과분 또는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선 참여 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해태htb 3개 공장까지 확대 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직접·간접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조직경계를 설정하였으며,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을 선택해 배출량을 산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2005년부터 이를 매년 시행 중이며, 해태htb는 2012년에 3개 공장, 2014년에 영업물류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범위

코카-콜라 음료

구분	조직경계	기간경계
공장(3개)	여주, 양산, 광주	2005년부터 매년 구축
정비센터(1개)	군포	
영업물류(25개)	안양, 하남, 인천, 일산, 남양주, 춘천, 수원, 강릉, 충주, 사상, 울산, 마산, 진주, 통영,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목포, 순천, 제주, 전북, 대전, 천안, 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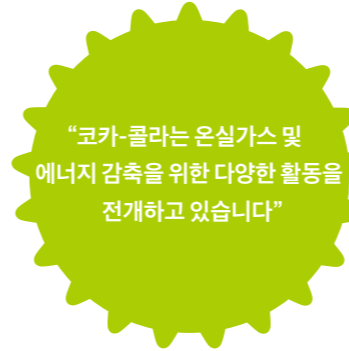
해태htb

구분	조직경계	기간경계
공장(3개)	천안, 평창, 철원	2012년 구축
영업물류(28개)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고양, 안양 이천, 원주, 강릉, 수원, 평택, 서부산, 동부산, 울산, 창원, 고성, 동대구, 서대구, 안동, 포항, 구미, 광주, 전북, 목포, 순천, 제주, 대전, 청주	2014년 구축

당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 WRI/WBSCD의 GHG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ISO14064-1에 의거하여 구축되었으며, 산정범위는 크게 직접 배출(Scope1)과 간접 배출(Scope2), 기타배출(Scope3)로 구분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범위(Scope)

구분	내용	당사 해당사항
직접 배출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고정연소, 이동연소
간접 배출	Scope 2 -기업의 활동 결과로 발생하였지만 다른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기업이 구입하는 전력/스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배출	전력구매
	Scope 3 임직원의 업무 출장/통근 등 기타 모든 간접 배출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코카-콜라 음료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5,696톤으로 전년대비 371톤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설비개선 및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는 전년 대비 0.25%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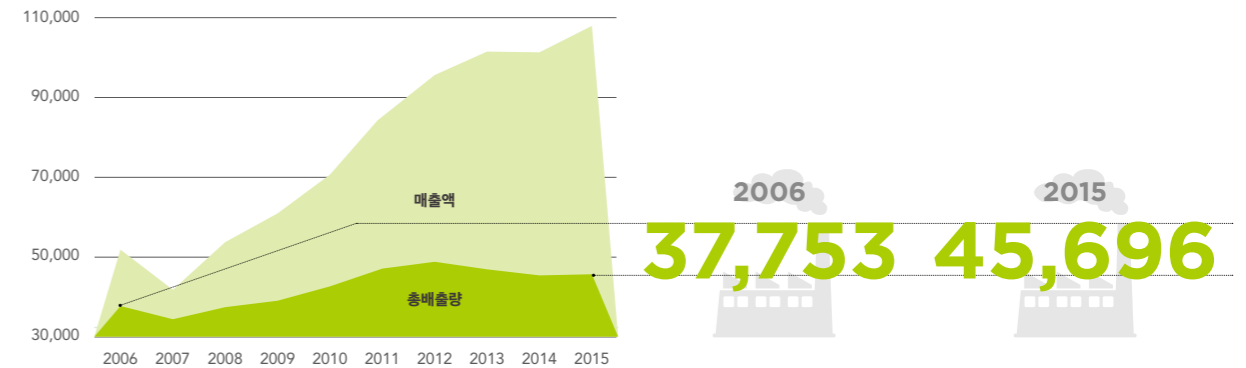
코카-콜라 음료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톤 CO₂)

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년 평균	비율(%)	
총배출량	37,753	34,474	37,270	39,148	42,594	46,782	48,589	47,004	45,325	45,696	42,379	100	
Scope 1	고정연소	10,833	9,359	10,902	11,911	13,893	14,874	15,957	15,226	14,084	13,108	13,015	30
	이동연소	11,243	11,466	11,037	11,081	10,565	12,216	11,486	11,290	11,297	10,939	11,262	27
Scope 2	전력구매	14,835	13,649	15,332	16,156	18,137	19,692	21,146	20,489	19,944	21,649	18,103	43
원단위(톤 CO ₂ /제품·m)	0.066	0.072	0.070	0.070	0.0686	0.0708	0.0697	0.066	0.0656	0.0655	0.0682		

10년 간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단위: 매출액 천만원, 총 배출량 톤 CO₂)



당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제3자 검증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국제규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2015년까지 코카-콜라 음료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42,379톤으로, 배출원별 배출비중은 직접배출(Scope 1)이 57%, 간접배출(Scope 2)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배출의 경우 고정연소가 30%, 이동연소가 27%를 차지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장 및 영업물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은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력구매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의 경우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LNG 보일러 및 난방용 등유설비가 주요설비입니다. 영업물류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 또한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력구매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는 영업소에서 사용한 난방설비가 주요설비이며, 이동연소는 영업용 휘발유·경유 차량 및 LPG를 사용하는 지게차가 주요설비입니다.

2015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현황

(단위: 톤 CO₂e)

코카-콜라 음료

구분	여주	양산	광주	영업물류	총계	비율(%)
총 배출량	19,726	8,479	5,364	12,127	45,696	100
고정연소	8,001	3,049	1,692	365	13,107	29
이동연소	779	274	179	9,708	10,940	24
전력구매	10,946	5,156	3,493	2,054	21,649	47
공정 중 CO ₂ 사용량	4,800	2,932	1,535			
에너지 사용량(TJ)	392	108	170	195	865	
에너지 원단위 (MJ/제품·ℓ)	0.98	0.88	0.97	0.28		

해태htb

항목	천안	평창	철원	익산	물류	총계	비율(%)
총 배출량	11,217	4,271	1,453	1,083	4,446	22,470	100
고정연소	5,912	5	2	643	30	6,592	29
이동연소	181	72	37	5	3,654	3,949	18
전력구매	5,124	4,194	1,414	435	762	11,929	53
에너지 사용량(TJ)	220	88	30	22	73	433	
에너지 원단위(MJ/제품·ℓ)	1.567	0.581	0.405	5.295	0.200	1.567	

코카-콜라 음료(주)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서



해태htb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개선사례

항목	개선항목	내용	절감량	감축량(톤 CO ₂ e)
여주	폐수처리장 혐기성처리시설 설치	혐기성처리시설을 신설해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폭기조의 운영을 축소 (3개 라인 → 2개라인)함으로써 브로워 가동대수가 감소(3대→2대)해 전력사용량 절감	전력 900 MWH	420
		혐기성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메탄)를 이용하여 보일러 가동을 통한 연료사용량 감소	LNG 202,020 Nm ³	447
	조명기기 효율화	기존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교체	전력 374 MWH	175
광주	생산현장 PET가온기 개선	시설노후로 인한 효율 감소로 노즐직경 및 펌프교체를 통한 연료사용량 절감	LNG 35,719 Nm ³	79
양산	PET1라인 열교환기 교체	PET1라인 혼합기 열교환기 열판 노후에 따른 효율 감소 신규 열교환기 교체에 따른 에너지 효율 증대	LNG 4,320 Nm ³	10
천안	CAN 1번 생산라인 클러 공정개선	CAN 1번 생산라인 가온방법 개선에 따라 연료사용량 절감	LNG 5,954Nm ³	13
	노후 에어컴프레서 교체	고효율 에어컴프레서 교체로 전력비 절감	전력 41 MWH	19
철원	노후 모터/ 펌프 교체 및 인버터 설치	취수정 3, 4, 5호정 모터펌프 최소용량 교체, 자동 취수 제어용 인버터 설치로 전력사용량 절감	전력 208 MWH	97



1 여주공장 창고 조명기기 LED전등으로 교체
2 여주공장 혐기성처리시설 설치
3 여주공장 관류 보일러 전경

“코카-콜라는 탄소성적표지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탄소성적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08년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에 참여, 국내 음료업체 최초로 음료제품에 대한 탄소성적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제품에 표기,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탄소성적인증 제품 현황

당사의 코카-콜라 500ml PET는 음료업계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휘오 순수 2L와 500ml 역시 국내 생수제품으로는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 코카-콜라의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생수제품의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의 경우 100ml 당 23gCO₂ 이하, 혹은 탄소성적표지 1단계 인증 시 탄소배출량 대비 4.24%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휘오 순수의 탄소성적은 각각 86.7gCO₂/개(500ml), 243.2gCO₂/개(2L)으로, 100ml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7.3gCO₂와 12.2gCO₂입니다. 또한 휘오 순수는 기존 먹는 샘물 '순수 100'을 리뉴얼한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13.5g 페트병(500ml 기준)을 사용, 기존 제품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2% 감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페트병 블로잉 In Line 설비를 제조사업장에 도입, 제품품질 및 공정 불량률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재(페트병) 운송 저감효과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효율 역시 제고되었습니다.

코카-콜라/휘오 순수



저탄소제품 인증서 (코카-콜라500ml)

탄소배출량 인증서 (코카-콜라1.5L)



저탄소제품 인증서 순수다이아몬드 500ml & 2L



에코디자인 국제컨퍼런스



또한 당사는 에코디자인 국제 컨퍼런스,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와 태국정부에서 주관한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 국제 세미나'에서 탄소성적표지 도입 우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당사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저탄소제품을 계속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단위: gCO₂/개)

구분	감축활동 전 탄소배출량	감축활동 후 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 감축율(%)
휘오순수 500ml	91.7	86.7	5.5
휘오순수 2L	281	243.2	13.5
코카-콜라 500ml	225	200.3	11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

	탄소배출량 (gCO ₂ /개)	단계별 탄소 배출량(gCO ₂ /개)			인증 기간
		제조 전 단계	제조단계	제조단계	
코카콜라 500ml (저탄소, 국내 최초)	200.5	151.2	39.9	9.4	'15.04.29~'18.04.28
코카콜라 1.5L	459.2	321.4	121.6	16.2	'15.04.29~'18.04.28
휘오 순수 500ml (저탄소, 국내 최초)	86.7	51.1	30.1	5.5	'15.10.31~'18.10.30
휘오 순수 2L (저탄소, 국내 최초)	243.1	130.5	100.7	11.9	'15.10.31~'18.10.30

“코카-콜라는 2008년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 매년 친환경 제품 구매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6월,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를 통한 녹색생산과 소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였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는 녹색구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부터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 녹색구매 실적 파악 및 소비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구매실적 중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리필제품', '재생제품',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을 녹색구매 활동으로 구분해 당사의 녹색구매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MRO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구매된 항목 중 2015년 약 4.9%가 친환경 제품 구매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녹색구매 마크 구분



저탄소 제품



탄소 배출량



GR 마크



고효율기자재



친환경 마크

코카-콜라 음료 각 사업장 녹색구매 현황

(단위: 천원)

사업장	연도	총 구매액	친환경상품			녹색구매율(%)
			환경마크	리필/고효율제품	소계	
여주	2015	1,780,347	99,590	3,103	102,693	5.8
	2014	1,427,938	92,275	1,431	93,706	6.6
	2013	776,134	76,031	1,102	77,133	9.9
양산	2015	407,382	5,731	3,622	9,353	2.3
	2014	468,763	2,385	1,669	4,054	0.9
	2013	381,675	1,378	875	2,253	0.6
광주	2015	430,068	8,661	2,076	10,737	2.5
	2014	437,985	6,489	670	7,159	1.6
	2013	273,038	5,193	188	5,381	2.0
전체	2015	2,617,797	113,982	8,801	122,783	4.7
	2014	2,334,686	101,149	3,770	104,919	4.5
	2013	1,430,847	82,602	2,165	84,767	5.9

※ MRO 전체 구매실적에서 녹색구매 대상품목으로 볼 수 없는 일부 구매품목은 제외함.

- ① 저장품: 정수카트리지 등
- ② 수선유지보수품목: 전동청소차, 기어/펌프/벨트 등
- ③ 간접재료비: 스트레치필름, 희석제, 청관제 등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서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식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을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미래의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COCA-COLA GREEN LEADERSHIP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2015 그린리더십



습지생태체험으로 생명존중의식을 일깨우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2011년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인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습지 탐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생태계의 공생관계와 습지 자연정화 능력을 배우고, 나아가 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은 연중 총 4회에 걸쳐 습지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 및 국내 대표 습지에서 진행되며, 수료 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환경보호에 관한 에세이 및 현장 참여도 등을 심사해 8명의 최우수 그린리더를 선발, 국외 람사르 등록 습지를 직접 탐사해보는 환경 연수의 기회까지 제공됩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밤섬을 시작으로 태안두웅습지, 인천송도갯벌, 보성별교갯벌 등 총 4곳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고덕수변생태공원을 비롯해 송도 저어새섬, 금강하구 및 서천갯벌, 순천만 등 총 4곳에서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빗물 재사용으로 물의 소중함을 깨닫다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

2013년 첫 선을 보인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는 학교 내 2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직접 빗물을 모으고, 조경·소방·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3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해왔으며, 2015년에는 난곡초등학교, 서교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가 3기로서 새롭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 3기로 선정된 이들 3개 학교는 자체 텃밭인 스쿨팜(School Farm)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으로, 모아진 빗물로 텃밭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빗물의 이용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빗물 이용의 중요성, 수질 측정 등의 수자원 교육을 진행하여 빗물이 소중한 자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는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약 52만 리터의 빗물을 모아 조경 및 청소용수로 재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물 절약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빗물의 누적량을 측정하고 재사용함으로써 물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는 환경교육의 장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EARTH HOUR CAMPAIGN

Earth Hour 캠페인



“코카-콜라는 ‘Earth Hour’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지구, 생명의 빛을 켜다

지구를 위한 1시간, ‘Earth Hour’ 캠페인

‘Earth Hour’ 캠페인은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캠페인으로, 매년 3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안 진행됩니다. 일반시민, 기업, 지역사회, 단체가 1년에 하루, 1시간 동안 가정 및 건물 등의 전등을 자발적으로 소등하며 환경문제와 지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2007년 1회부터 ‘Earth Hour’에 참여해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주요 코카-콜라 사업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며 기후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에 동참해왔습니다. 현재 ‘Earth Hour’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점점 그 참여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전 세계 172 개국, 7,000 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인·기업·기관 등이 지구촌 전등끄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ICC 환경정화활동과 지역환경 개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ICC 환경정화활동 & 지역환경개선활동

ICC 환경정화활동

코카-콜라는 환경보전을 위해 전 세계 코카-콜라와 함께 매년 ICC(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CC란 ‘국제 연안 정화의 날’로 전 세계 연안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지구촌 해양환경보전 실천행사입니다. 코카-콜라는 이러한 전 세계적 환경보전활동을 후원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각 공장 인근의 하천을 대상으로 선정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본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 개선활동

코카-콜라 여주공장은 공장 주변에 위치한 점봉천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주공장 임직원들은 2015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점봉천 주변에 버려진 페비닐, 담배꽂초, 페스티로폼, 휴지 등을 수거하며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신록사 주변, 황학산 등산로 주변의 환경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은 양산천 일대 정화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된 각종 폐기물로 오염된 양산천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상시 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NGO와 지속적인 환경 파트너십을 맺어 친 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공장은 산동교 주변 일대에서, 천안

공장은 공장 인근의 천안천에서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생수를 생산하는 평창공장은 인근의 진조리 직동에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구분	년도	활동횟수(회)	인원(명)	수거량(kg)
여주	2013	3	61	300
	2014	2	37	200
	2015	2	34	250
	계	7	132	750
양산	2013	15	89	1,500
	2014	15	150	1,800
	2015	7	46	500
	계	37	285	3,800
광주	2013	2	52	500
	2014	2	72	300
	2015	2	35	350
	계	6	159	1,150
천안	2013	4	46	1,100
	2014	4	44	1,200
	2015	4	37	1,000
	계	12	127	3,300
평창	2013	2	25	540
	2014	2	38	680
	2015	1	13	360
	계	5	76	1,580

여주공장 1사1하천



양산공장 1사1하천



광주공장 1사1하천



2016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용어 사전

고정배출원

보일러, 로, 버너, 터빈, 히터, 소각로, 엔진, Flare 같은 고정 장비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 열, 증기, 전력 등의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반용기 보증금 제도 Beverage Container Deposit System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용기 사용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반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반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동배출

공장 내에서의 이동 및 상품·원료 운반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트럭, 버스, 기차, 비행기, 보트, 선박, 바지선, 항공기 등과 같은 수송 장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생산품의 출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이 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 지침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한국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음료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CCKC Coca-Cola Korea Company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의 약자입니다.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담당합니다.

CCB Coca-Cola Beverage Company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의 약자입니다. 국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담당합니다.

FBL Finally filled Beverage Liter

최종 생산된 음료제품을 부피(리터)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코카-콜라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Utility(물, 전기, 연료 등)의 효율적인 사용을 원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용수사용량(l/FBL)은 총 생산된 음료제품 1리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의 양을 의미하며, 전력사용량(kWh/FBL)은 제품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몇 kWh를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KORE 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

코카-콜라 고유의 품질 시스템입니다. 환경, 제품의 품질, 안전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는 국제규격인 ISO9001, ISO14001, OHSAS18001 등의 국제기준 요구사항에도 부합합니다.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모성 자재를 의미합니다. 기업 소모성자재 또는 기업 운영자재라고도 합니다. 필기구부터 복사용기·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이 대표적이며, 청소용품과 각종 설비, 장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RGB Returnable Glass Bottle

1회용 유리병이 아니라 회수하여 깨끗이 세척해 재사용하는 유리병을 말합니다.

TCCC The Coca-Cola Company

원액과 시럽을 생산, 판매하는 코카-콜라사의 약자입니다. 생산된 원액과 시럽은 코카-콜라사의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전 세계의 보틀러에게 공급됩니다.

Coca-Cola